<특집: 화학플랜트 동향>

“ 침체기 접어든 플랜트시장 ”

°화학플랜트 신 · 증설 추이
°엔지니어링산업
°해외 플랜트시장
°해외 화학 프로젝트

한국의 석유화학산업과 엔지니어링산업은 불가분의 함수관계에서 92년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긴밀한 구도의 틀이 해체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그동안 석유화학플랜트에 대한 설비투자의 집중과 둔화를 통해 성장의 기폭에 영향을 받아왔지만, 향후의 진보와 산업고도화는 당분간일지라도 정유산업과 정밀화학산업의 설비투자 동향에 주시하며 운신해야할 국면에 이르게 됐다.
이같은 내수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글로벌화된 세계 플랜트시장으로의 진출과 수주확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또다른 변수와 묘수로 부각되어 있다.
최근에 당면한 시장축소(협소)의 난제를 해소키 위해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사업다각화와 R&D, 사업수행체제의 고도화,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경영전략으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업의 체질전환을 위한 노력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
기득권적 요소에 얽매이는 엔지니어링기업의 안일한 사업적 위상은 한국의 화학산업과 개별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재검증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수주 및 수행을 위한 시장파악의 불확실성은 해외 뿐만이 아닌 자신들의 안방인 국내에서도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이라는 다원적 경쟁의 장에서도 떠밀리고 있다.
따라서, 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에 있어 최근의 여건과 대내외적 사업요소들은 자생력을 시험받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한국 · 동남아 · 중국 · 동유럽 · 서유럽 · 중동 · 중남미 등 세계의 플랜트시장은 넓고, 그속에 있는 엔지니어링기업은 해야할 일도 많다.
우선, 스스로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최적의 형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화학저널 1992/2/15>